



### 가정의 달인 5월에 사랑을 실천하자

정기연 전 영암 신북초등학교 교장

칼럼

신록이 우거진 푸른 5월은 가정의 달이며 사랑을 실천하는 달이다. 가정은 사랑을 알고 사랑을 실천하며 사랑 속에서 살면서 보람을 찾는 사랑의 보금자리다. 사랑이란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으면서 도움을 주는 생각을 실천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5월에, 5월 5일은 어린이를 사랑하는 제 103회 어린이날, 5월 8일은 부모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랑하는 제53회 어버이날, 5월 15일은 스승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랑하는 제44회 스승의 날(RCY 62회), 5월 21일은 부부가 한 몸처럼 사랑하는 제19회(기독교 권재도 목사 31회) 부부의 날이 있다.

새들은 짝짓기하면 알 낳을 둥지인 보금자리를 만들고 알을 낳아 새끼를 친다. 사람은 남녀가 결혼하여 부부(夫婦)가 되면 새로운 보금자리인 가정을 만들고 자녀를 낳아 기르며 행복한 가정생활을 하려고 노력하며 산다. 가정에서 사랑을 못에 익히지 못하면 사랑을 실천할 수 없다. 따라서 가정의 달인 5월에 사랑이 충만한 가정을 만드는데 부부가 같이 노력하고 이것을 자녀가 몸소 배우게 해야 한다.

가정이란 부부를 중심으로 혈연 관계자가 모여 사는 사회의 가장 작은 집단을 말하며 부부 자식 부모 등 가족이 공동 생활하는 조직체를 말한다. 사람은 살아가는데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가족을 이루고 이웃과 더불어 도우면서 살고 있다. 가정은 사람이 더불어 살아가는 최소의 단위 삶의 틀을 말하며 가정에는 인적 구성인 가족이 있고 가족이 모여 사는 물리적 주거 환경인 집이 있다. 가정의 구성은 인위적 관계로 맺은 부부가 있고, 부부의 사랑의 열매라 할 자녀가 있다.

가정은 부부나 자녀로 이루어진 소가족이 있고, 한집안에 부모 자녀 조부모까지 어울려 사는 대가족도 있다. 사회의 변화와 직업이 다변화되면서 직장을 따라가는 관계로 부모와 자녀로만 구성되는 핵가족으로 변천 발전하고 있다. 함께 산다는 것은 같은 주거 환경 속에서 같이 살며 같은 생각과 믿음을 가지고 함께 하는 시간을 가지고 사는 삶이다. 가정은 서로 돕는 부부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된 보금자리며 사랑이 없는 가정은 가

정으로서 기능을 상실한 것이다.

가정에서 어린이는 부부의 사랑의 열매로서 희망이며 꿈이고 보람이다. 올해도 제103회 어린이날이 있었는데 부모들은 어린이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여 어버이를 기쁘게 하고 돕는 일을 실천해야 한다. 나의 성장을 도와주시고 지식 기능 정보를 일깨워주시는 스승은 부모와 같아서 스승의 은혜를 생각하며 스승을 부모와 동격인 사부(師父)라고 한다. 제44회 스승의 날(RCY 62회)에는 사부인 스승의 은혜에 감사하며 스승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추진해야 한다. 우리는 모두가 제자이면서 스승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내가 제자로서 사랑을 실천할 때 나의 제자들도 스승을 찾게 될 것이다.

제19회 부부의 날을 맞이하게 되는데 부부의 날은 부부관계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화목한 가정을 일러가자는 취지에서 가정의 달인 5월에 '둘이 하나 된다'라는 의미를 담아 '21일'로 정했다. 부부가 처음 맺어질 때 비록 남남이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배우자로 선택했고 수많은 일과 친척 친지 앞에서 부부는 어떠한 경우라도 서로 사랑하고 도울 것을 맹세하고 부부가 된 것이다. 부부는 항상 부부로 맺은 혼인 서약의 원점으로 돌아가서 서로 믿고 도우며 의지하면서 살아야 할 것이다.

행복한 가정은 부부의 따뜻한 사랑 속에서 이루어지며 자녀는 효심의 사랑으로 부모에 보답한다. 우리는 가정의 달에 사랑을 배우며 실천하는 것을 배우야 한다. 가정에서 사랑이 결핍되는 것은 불행한 일이므로, 행복하게 살려면 서로 돕는 사랑으로 충만한 가정을 만드는데 힘써 실천해야 한다. 우리는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이하여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가 효도로 부모를 사랑하고, 스승과 제자가 존경으로 서로 사랑하고, 부부가 믿음으로 서로 사랑하는 사랑을 배우고 실천하는 삶이 되었으면 한다.

### 대형 산불 막는 첫걸음 기동성 높은 산불진화차량 확충 시급

이호범 화순부군수

기고



최근 계속되는 이상 고온과 건조한 날씨로 인해 산불 위험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림 면적이 넓고, 경사도가 가파른 화순군과 같은 지역에서는 산불 발생 시 피해가 빠르게 확산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산불 확산을 막기 위한 최적의 방안으로 가장 우선하는 행동 요령은 발생 초기 신속 대응입니다. 그러나 화순군에는 산불진화차량이 일부 지역에만 배치되어 원거리 읍·면의 산불 발생 시 신속 대응이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특히 고지대나 차량 접근이 어려운 농촌 산간 지역에서는 현장 도착이 지연되면서, 대형 산불 위험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현재 산불 현장에 투입되고 있는 일반 소방차는 크기가 대형차 수준으로 농로·임도·급경사지 등 좁고 험한 길의 진입이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까닭에 현장에 도착하더라도 불길 가까이 접근하기가 어렵고, 결과적으로 초기 진화에 한계가 발생합니다. 반면, 산불진화차량은 차체가 작고 기동성이 뛰어나 좁은 산길이나 임도까지도 빠르게 진입할 수 있고, 초기 대응에 매우 효과적인 장비입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읍·면 1대씩 산불진화차량을 배치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초기 대응 능력 대폭 향상  
읍·면마다 진화차량이 상시 대기한다면, 산불 발생 직후 5-10분 이내 출동이 가능해져 초기 진화 성공률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이는 대형 산불로의 확산을 예방하고,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 지형에 적합한 기동성 확보  
산지가 많은 화순군의 특성상, 일반 소방차보다 기동성이 뛰어난 소형 진화차량이 더 적합합니다. 좁고 험한 지형에서도 원활하게 접근할 수 있어 현장 대응에 유리합니다.
- 지역 기반 대응체계 강화  
읍·면에 배치된 산불진화차량은 산불예방진화대, 자율방재단, 마을 이장단, 의용소방대 등과의 협업을 통해 더욱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평소 훈련을 통해 장비 운용 능력을 향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경제적·환경적 피해 예방  
산불 피해 복구에는 수년, 수십 년이 걸릴 수 있으며, 막대한 비용이 수반됩니다. 반면, 초기 대응을 위한 차량 1대 확보는 수십억 원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매우 효율적인 투자입니다.

화순군은 전체 면적 중 약 73% 이상이 산림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많은 군민이 산림 인접 지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할 때, 읍·면별 산불진화차량 확보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입니다. 지역의 소중한 산림 자원을 지키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산불진화에 필수 장비인 산불진화차량을 확보해 나가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하루빨리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 청소년 도박범죄 예방에 우리가 더 집중해야 할 이유

기고

박재영 무안경찰서 경무계장 겸감

5월 12일부터 18일까지 청소년 도박범죄 예방 주간이다. 도박문제 예방주간은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한국도박문제 예방지원원에서 불법도박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2024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청소년은 중독에 취약하고 게임과 현실을 구별하지 못하며 자제력이 부족한 특징이 있다. 이를 반영하듯 청소년 도박범죄가 급증하고 있고 점차 저연령화 되고 있으며 도박자금 마련을 위한 2차 범죄나 학교폭력으로 이어지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실제 통계상으로도 2022년 도박 범죄로 검거된 청소년이 76명에서 2023년에는 184명, 2024년 636명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경찰청은 청소년 도박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학교전담경찰관(SPO)을 통해 학교폭력 예방 교육시 도박 예방 교육을 병행 실시하고 있다. 점심시간을 이용해 청소년 도박인식 개선 캠페인을 하거나 희망동행교실을 통해 예방 교육을 집중하고 있다.



또한 SNS를 통해 도박범죄에 대한 정보수집을 강화하고 있다.

적극적인 첩보활동을 통해 가출 청소년으로 이루어진 도박범죄를 해체하고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거나, 불법 사 이버도박으로 1억원을 잃고 차량 털이중 검거된 청소년을 치유기관에 연계하기도 하였다.

특히 고위험이라고 판단되는 청소년에 대해서는 재범 위험성을 판단하여 고위험군으로 지정·관리하고 한국중독정신의학회와 협업을 통해 중증인 경우 전문병원에 인계하여 치료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중독범죄 특성상 예방이 최우선책인 만큼 청소년은 물론 학부모에 대한 교육도 더 자주, 더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청소년 도박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책임임을 인식하고 국가와 지역사회는 물론 가정에서도 더욱 관심을 가지고 청소년들이 도박이라는 위험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호남신문 i-honam.com		대표전화 (062) 229-6000	
		광주서구운천로 213스카이랜드 309호	
발행인·편집인 김순열 편집국장 서선옥			
동부취재본부	전남 순천시 유동3길 26 서주빌딩 101호	(061) 905-2011	
서부취재본부	전남 나주시 왕건길 33-14	(061) 333-0805	
기시계보	(062) 222-2580	광고직통 (062) 228-2580	팩스 (062) 222-5547
등록번호 광주가 00021 (일간) /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5,000원 1부 500원 인 쇄 mpn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의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행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 입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왜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된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